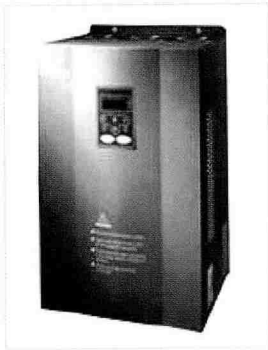


일진전기
고성능 경제형 인버터 출시



중전기 전문업체인 일진전기(주)(대표 최진용)가 에너지절감과 자동화에 주로 쓰이는 모터 구동용 인버터를 출시했다. 인버터는 주파수를 변환시켜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기기로 팬, 펌프 등의 가변부하에 적용되어 에너지를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일진전기가 출시한 제품은 최신 전력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고 신뢰성, 저가격을 실현한 제품으로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절감 부하인 팬, 펌프 등에 적용하여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바이패스 기능이 내장된 판넬일체형 인버터인 사출기전용 인버터와 한대의 인버터로 다수의 펌프를 제어하는 전용 인버터도 개발한 상태다.

일진전기 관계자는 “최근 유가 급등과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절감 시책들과 맥을 같이해 그 동안 확실한 에너지 절감 기기중의 하나로 인정 받아왔던 인버터를 일진전기의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국내 인버터 매출이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팬, 펌프 등의 부하에 인버터 장착률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인버터 시장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5년 이내에 500억원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국하니웰(주)
세이브더칠드런 ‘그룹홈’에 1천만원 기부금 전달

한국하니웰(주)은 세이브더칠드런 산하인 ‘마포 신나는 그룹홈’에서 1천만원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집들이 행사를

를 동시에 가졌다.

한국하니웰이 기부한 1천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주거 환경 개선 비용으로 지원됐다. 이를 통해 공부방 내부 도배와 장판 교체가 이뤄졌고, 책상과 옷장들을 구비했다. 뿐만 아니라, 주방의 싱크대 교체와 전기 공사 등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성호 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그룹홈의 변화된 내부를 돌아보며 공사 결과에 대해 듣고 아이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그룹홈은 가정 내 학대, 방임, 부모의 이혼, 가정경제 위기 등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가정적인 환경에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생활공간이다. 현재 마포 그룹홈에는 7명의 남녀 아동들이 생활 지도교사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박성호 사장은 “미래의 기둥이 될 아이들이 해맑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서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마포 하니웰이 주변 이웃들, 특히 어려운 아동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업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주)케너텍
홈페이지 새단장



소형열병합발전 전문기업 케너텍이 홈페이지(www.kenertec.co.kr)를 새롭게 오픈했다.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는 사내소식, 홍보동영상, 에너

포철기연 VP시스템 도입

지소개 등 주제별로 구분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정보 및 관련 기관의 사이트들을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디자인 부분에서 최대한 가독성을 높여 사이트 정보접근성을 강화, 콘텐츠를 보다 알기 쉽게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어 숨어있는 콘텐츠들의 노출빈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주)효성

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열어

효성은 지난 11월 7일 마포 본사 지하 강당에서 올해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를 열고 경영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효성은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실적 증가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3분기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1.3% 증가한 1조 3161억원, 영업이익은 83.2% 증가한 573억원, 순이익은 118.3% 늘어난 3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핵심사업 부문별 역량이 강해지면서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섬유부문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스판덱스 부문에서 큰 폭으로 실적개선을 기록했다. 또한, 중공업 부문에서는 미국과 브릭스 등지에서 수주가 늘었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소인 삼랑진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전력 및 기전 부문에 있어서의 실적 증가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

효성은 4분기에도 스판덱스 매출 증가와 중공업 부문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올 한해 매출액 5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

품질 정밀도·생산성 향상 기여 기대

포스코는 포스코 기술연구소에서 포스코와 철강계측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포스코의 고급강 수요증가와 고객의 고품질에 대한 요구수준 충족 및 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계측기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축적된 철강기술을 바탕으로 그룹사간 기술협력에 의한 계측기술을 유지, 발전시키고 기술 노하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사가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기존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의존을 탈피해 국산화 및 자력수행으로 최적의 계측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포스코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계측기술을 상품화해 현장에 확대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측은 원가절감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진화하는 포스코형 계측기를 현장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품질 정밀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양에코너지(주)

제1회 전력수요관리대상 수상

삼양에코너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최하는 '제1회 전력수요관리대상'에서 협력업체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분야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상식은 오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흥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에는 수요관리 분야별 활성화 전력 주제발표 및 토의, 전력수요관리대상, 수요관리우수논문 시상 및 만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삼양에코너지는 본사를 춘천에서 천안(충남 천안시 쌍용동 220-21 삼일빌딩 TEL 043-575-5611)으로 이전·확장했다. 따라서 춘천은 강원지사로 남는다.